

# 대구·경북 영하 15도

## “살에는 듯한 추위”... 대한민국이 퐁퐁 얼었다

대구·경북 매서운 한파  
봉화 석포 영하 17.8도  
수은주 -8.5도 보인 대구  
체감온도 무려 -15.9도

북극한파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얼게했다. 전국 곳곳에 한파-대설특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양의 눈과 강풍은 제주지역의 하늘·바닷길을 모두 막아버렸다.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도 발령됐다. 대구·경북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륙의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10도~-6도)보다 3~8도가량 낮은 -18도~-8도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봉화 석포 -17.8도, 문경 동로 -15.2도, 칠곡 팔공산 -14.1도, 영주 부석 -14도, 청송 현서 -13.8도, 상주 화동 -13.7도, 경주 토함산 -12.7도, 의성 옥산 -12.5도 등을 기록했다.

수은주가 -8.5도를 나타낸 대구는 바람을 고려한 체감온도가 -15.9도까지 내려갔다.

영양·봉화 평지,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 영천과 청도, 고령,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경주, 대구 군위에는 '한파주의보',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평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경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울릉도 11.2cm, 울릉도 태하 1.7cm, 울릉도 천부 1.4cm 등이다. 울릉·독도에는 동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 구름



북극한파로 23일 오전 수은주가 -8.5도를 나타낸 대구는 바람을 고려한 체감온도가 -15.9도까지 내려갔다.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한 상인이 모닥불에 손을 찻고 있다.

대 유입으로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3cm 내외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중부·전북동부·경상권 일부 등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며 “기온은 오는 25일 오후부터 차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는 오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와이엔피산업 3000만원 쾌척

영덕에 톨건 기부 이어졌다.

북극한파속 날아온 낭보다

주인공은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엔피산업의 최동연 대표다.

최 대표는 2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총력전

#### 경북교육청-경북도 9개 지자체 업무 협약 체결

경북교육청은 23일 도 교육청 옹비관에서 경북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엔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이다.

교육발전특구 유형은 △기초지자체청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다.

행사에서 7개(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기초자치단체가 1유형으로, 2개(안동, 예천) 기초자치단체가 3유형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한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초 최종 지정한다.

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모델은 경북 북부형으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소속 특화 교육 중심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도-교육청-시군 간 행정적 협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준길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면 폐지 일등공신 흥준표

#### 흥준표 대구시장의 과감한 대형마트 규제개혁 공휴일 의무휴업 10년만 전면폐지 이끌어낸 톨건 혁신 사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전면 폐지 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단초를 줬다.

결국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가 이끌어낸 셈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톨건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해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꾀하는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여은 기자





### 대구은행, '설날 특별자금대출' 5천억원 지원

DGB대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날 특별자금대출'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달 23일까지 실시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2.6%p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조미경 기자

# 학교 급식 접수한 '조리 로봇' 대구는 깜깜 무소식

## 급식종사원, 튀김요리 엄청난 위험 늘 발암물질 노출 도입되길 희망

대구교육청도 학교 급식 조리로봇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전국적으로 급식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대구는 깜깜 무소식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10억 예산을 들여 급식로봇을 시범실시했다. 급식로봇 도입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범학교인 서울의 송곡중학교에 급식 로봇이 도입되면서 급식소 종사원들의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반응이다. 재료를 솜에 투입하고 조리하는 과정이 자동

화됐고 국과 건더기가 골고루 섞여 주걱, 튀김기의 기름 튀기 등을 로봇이 대신 하고 있다. 급식 대량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높은 온도 강도로부터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 대구의 학교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튀김요리할때 엄청난 위험하다. 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대구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로봇 기업 관계자는 "한 학교당 1억씩 지원되면 급식소 로봇설치가 가능하다. 우선 강원교육청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강원도에서 우수사례 있어야 진행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급식실을 중심으로 로봇을 도입, 노동력을 보충해주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미경 기자



## 대구시, 돌봄 인력 확대 서비스 품질 높여

###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자부담 10% 추가 지원

올해부터 대구의 2자녀 이상 가구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지원을 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의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인력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돌보미 희망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북지로(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경북교육청, 특수교육 질 향상...적극 지원

### 올해 523명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경북교육청이 올해 523명의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한다. 지난해보다 22명이 증원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돕기 등을 지

원한다. 특수교육실무사 523명 중 118명은 8개 특수학교, 405명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의 활동 △방과 후 활동 △등하교 지도 △포괄적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신규임용자는 직무연수 3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권역별 연수와 교육지원청별 연수 등

각종 직무 관련 연수를 한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이나 야영 시 동숙하는 경우 1박 5만 원의 동숙비를 지급, 학기 준비일 4일을 부여한다. 임종시 경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는 특수교육지원 인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 대구 아파트 공사 전국서 가장 긴 이유는?

### 수도권 평균 28개월, 대구 39개월 미분양문제-공사비-건설업체 갈등 부실공사 이슈 등이 영향 미쳐...

대구의 아파트 공사 기간이 평균 39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4'에 따르면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9개월로 최근 4년(2020~2023년)간 평균보다 4개월 더 걸렸다. 수도권은 평균 28개월, 지방은 31개월인데, 대구는 평균 39개월로 가장 길었다.

미분양 문제와 공사비, 건설업체 갈등, 부실공사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과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가장 길으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공사 기간은 30개월로, 500가구 이하 중소단지(22개월)에 비해 8개월 더 소요됐다.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 사업에 비해 재개발 기간이 더 길고, 대단지는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변수가 많은데 까다로운 공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여은 기자

## 군위군, 둘째아 이상 가정 출생축하금 지급

군위군은 올해부터 둘째아 출생가정에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2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출생일(또는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으로 2023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군위보건소는 "2023년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군위군 자체 출생양육지원금

사업과 더불어 대구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첫째아부터 적용되는 군위군 자체 출생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 및 난임진단검 사비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재성 기자

## 대구교육청, 모든 학교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정책 추진 적극 반영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한다. 실물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실생활 속 경제금융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 속 경제금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건전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아나겠다"고 말했다.

#### □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급별 각 15차시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했다. 경제금융교육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학교 내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했다. 올해 경제금융교육 기반 조성, 경제금융교육 자료 개발,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한다. 예산은 총 2억여원이 투입된다. 대구교육청은 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 연간 5차시 이상으로 경제금융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교과별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 활동 등과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 □ 팀당 100만원씩 운영비 지원

학교 내 교육과정과 연계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금융 학생 동아리 60팀을 선정, 팀당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제금융교육 중점학교 3개교(학교급별 1개교)를 지정하고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 경제금융교육 운영 우수모델도 개발한다. 이들은 교원 경제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 방안 연구를 위해 경제금융교육 교원연구회 3팀(학교급별 1팀)에 각 3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경제금융교육 기반 조성에 힘쓴다. 대구교육청은 초·중·고 교원 중심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대구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 표준안과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 후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 □ 경제금융교육 정책 반영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진단과 학생 경제금융 역량 평가 도구도 개발해 향후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대구교육청은 경제금융교육 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경제금융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경제금융교육 교원연구회와 연계하는 프로젝트 중심 경제금융교육 수업자료를 개발 후 학교에 보급하는 등 경제금융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교관 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대상 연수와 학생 대상 경제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힘쓴다. 학부모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제금융교육 배움 특강도 운영해 학부모의 역할 및 경제금융인식 제고에 나선다. 황태용 기자

## 윤재옥 "野, 일부러 대통령에 도발하고 정치탄압 과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야권을 향해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치인은 학교 선생님, 검경, 판사, 언론인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들보다 신뢰 받지 못하고 최하위권에 포함돼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미래세대 신뢰가 이처럼 바닥을 친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며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운영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주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현장 점검

경주시보건소가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감염취약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발생병원의료기관 및 입소자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경주시는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시 현재까지 실시된 사례가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입소자 모니터링을 하고, 유증상자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할 것을 현

장 지도했다.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비말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80곳 시설에 감염병 예방교육과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 이번 현장방문으로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 세계인 모여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飛上

## 주낙영 시장, 5년간 경주 관광 미래 비전 새로운 청사진 제시

경주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과 매력적인 관광도시 변모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주낙영 시장은 "한국인이 아니라 누구나 가봐야 하는 관광도시를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안료보고회'를 가졌다.

관광진흥 계획은 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지역관광의 청사진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글로벌 관광수도 도시 브랜드 강화 △역사문

화자원 기반 융합형 관광사업 육성 △스마트 관광시대 여행하기 편리한 경주여행 △새로운 시각으로 Hip한 경주 알리기 등 4가지 추진전략, 총 50개 세부 신규 사업을 제시했다.

제시된 세부사업 중 △신라문화제의 글로벌 브랜드화 △글로벌 문화 웰니스 육성 △경주 디지털 카니발 등이 눈에 띄어 볼만하다.

신라문화제는 핵심 프로그램인 '하백대전'을 리뉴얼하고 신라문화를 활용한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 전후 콘텐츠를 통한 가치 공유는 물론 60여 년의 전통을 살려 글로벌 수준의 축제로 발돋움한다.

웰니스 육성은 대릉원, 동궁과월지, 경주남산 등 6곳의 역사 유적지와 웰니스를 결합해 차별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디지털 카니발은 월별 또는 권역별로 디지털을 소재로 한 축제를 통해 경주여행의 새로운 재미와 더불어 여행 콘텐츠를 강화한다.

시는 이날 연구 결과를 토대로 50여 개의 신규 사업은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정, 추진한다.



## 경주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행사

농특산물 10~20% 천년한우 최대30%  
경주물 신규 가입 5000원 쿠폰 증정

경주시가 갑작스러운 설을 맞아 서민들의 정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달 12일까지 풍성하고 알찬 농축수산물 특별 할인 행사를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농특산물 10~20% 할인 △경주천년한우 최대 30% 할인 △전통시장 수산물은 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 최대 30%) 행사를 한다.

농특산물은 새달 12일까지 온라인 경주물(gmail.cysso.co.kr)에서 20% 할인, 오프라인 매장은 본점(계림로 69), 불국점(진현로 1길 59-5)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품목은 지난해 K쌀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사금쌀을 비롯해 벼싧, 벌꿀, 들기름, 미역, 전동차 등 고품질의 농수산물부터 지역 특색이 담긴 기념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경주물 신규 가입 시 5000원 쿠폰 증정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경주천년한우는 외동·보문·용황·본점(용강)에서 구이류와 제수용품으로 각각 나눠 할인 행사를 한다.

구이류(염진살, 제비추리, 등심, 부채살)는 오는 28일까지 20~30%, 제수용품(양지, 차돌박이, 다짐육, 목심)은 2월 1일부터 9일까지 15~27%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산물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 6만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까지 환급된다.

누리상품권 환급은 환급 부스에서 핸드폰 번호 전달을 통해 구매내역,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주시는 질 좋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 승삼어린이공원 맘 편한 놀이터 오픈

### 맘편한 놀이터 25호점 오픈식 아이들 안전하게 놀수있는 공간

경주 용강동에 있는 승삼어린이공원이 기업과 아동복지재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mom(맘) 편한 놀이터 25호점' 오픈식을 승삼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다.

'mom(맘) 편한 놀이터 사업'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22일 열린 오픈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형 경주시의회 부의장, 정원기 시의원, 김중우 시의원, 임승환 용강초등학교장이

참석했다.

기업과 아동복지재단에서는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최대락 초록우산 경주후원회 회장, 전우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신호 가이아 글로벌 사장 등이 참석했다.

25호점은 '작은 경주마을 놀이터'를 콘셉트로 용강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아동디자인단 12명의, 스틸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반영, 경주 대표적 문화재인 첨성대를 형상화한 놀이시설을 제작·설치했다.

오픈식에서는 mom편한 어린이 놀이터 25호점 조성 및 아동디자인단의 활동보고와 함께 롯데그룹은 경주시에게 mom편한 놀이터 25호점 현판을 전달하고 아동디자인 대표 어린이에게 상징과 선물전달식을 시행했다.

## 경주시민안전보험... 5억 5000만원 지급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로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

전보험 덕분에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 5053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1인당 평균 37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스포츠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 다녀 오세요"...

친정방문사업 새달 6일까지 접수  
20세대 선정 세대당 200만 지원

경주시가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새달 6일까지 주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친정방문사업신청자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이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 가능한 가정이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20세대 선정세대당 2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소득수준, 결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다음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별도의 환송식을 가진 뒤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가구(베트남 131, 중국 39, 필리핀 31, 일본 15, 캄보디아 10, 기타 9)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친정방문 환송식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은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고국 방문 기회를 부여, 향수를 달래고 가족들이 상하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경북

포항 올진  
영덕 올름

# 포항, 내년 국비확보 총력...1조 5511억 발굴·건의



영덕군-경북도교육청  
영덕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영덕군과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영덕미래교육지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군과 경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7년까지 4년간 각 주체가 매년 2억 원, 총 16억 원의 예산을 분담해 인문·예술·체육 분야 마을 학교 운영, 지역체험장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미래 청사진 제시 TF팀 본격화



포항시는 독거노인,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형 미래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포항형 미래 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TF 사전 실무회의를 열어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피부양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대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관련 부서원으로 마스터플랜 TF도 구성했다.

마스터플랜 TF는 노인, 장애인, 청년, 가족, 아동, 교육, 보건, 일자리, 주거 등 각 분야의 문제 대응 방향을 도출하고 올해 6-7월 중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창명 기자

## 경북도와 중앙부처 집중 방안 국비 확보 위해 전 행정력총력

포항시는 20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2025년도 2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 1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차 보고회도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2월부터 경북도와 중앙 부처를 방문해 올해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세입 감소와 강화된 지출 관리로 국비확보가 점점 어려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 직원이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은 261건, 1조 5511억 원 규모로 신규 사업이 98건, 1641억 원, 계속 사업이 163건, 1조 3870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교통과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SOC 분야에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2000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782억 원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 240억 원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60억 원 등이다.

포항-신공항간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국도31호선(구룡포-갑포) 도로 확장, 동해 중부선(포항-강릉) 구간 복선 전철 등은 예산 반영에 앞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분야에서 ▲저탄소 절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스마트 식물공장형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개발 사업 28억 원 ▲표준배터리 기반 초소형 e모빌리티 실증사업 42억 원 ▲정류소수 생산기술 및 공정 실용화 개발 35억 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복합·환경분야는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건립 30억 원 ▲지진 피해지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60억 원 ▲포항시 일월동 고향자 복지주택 조성 40억 원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75억 원 ▲향

사범 건립 125억 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36억 원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40억 원 등을, 농림·수산 분야는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14억 원 ▲에너지저장형 스마트팜 실증지원센터 구축 100억 원 등을 건의한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광역 지자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시업무부와 공조관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건의사업의 마비점 등

을 보완해 오는 2월부터 중앙 부처와 경북도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업무 보고회와 공모 사업들을 분석해 3차 보고회까지 추가 신규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상길 포항부시장은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3차 보고회까지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반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 딸기 먹고 '하하' 썰매 타고 '호호'

### 울진군 왕피천공원 빙상장, 딸기수확체험장 인기

울진군의 왕피천공원에서 운영 중인 빙상장과 딸기수확체험 프로그램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름관 빙상장은 3월 11일까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에는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이용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왕피천 공원 내에 다목적 문화공간인 아름관 빙상장은 세로 30m x 가로 50m 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총 600명 인장이 가능하고, 빙상장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등 휴식공간도 있다.

입장료는 회차당 2000원이며 울진군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케이트(전도 포함) 및 썰매 대여료는 각각 1000원이다.

또 이곳 왕피천공원에 왕피천공원 경자지 하우

스에서 진행되는 딸기수확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겨울방학 동안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엑스포공원 내 유기농 경자지에서 가족단위로 운영되는데, 어린이(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한 최대 6명(어른 2명 제한)으로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다.

딸기 수확 체험을 시작하기 전 직접 생산하는 전문가로부터 딸기의 특징과 재배기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딸기 체험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왕피천공원사업소(☎054-789-55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왕피천공원 찾은 한 관광객은 "열심히 딸기를 기른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의 소중함에 한번 더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주말에 아이와 함께 왕피천공원에 위치한 빙상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고 새콤달콤한 딸기 수확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직접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먹고, 빙상장에서 스케이트와 썰매 등을 즐기며 왕피천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왕피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말했다. 이정수 기자

### 울진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군민의 든든한 해결사

울진군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호평을 받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전구교체,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전문인력 4명이 2개조로 나뉘 울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269건을 해결했으며 방충망 교체가 3436건, 전등 교체가 2952건으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정수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자격 취득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영덕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디지털 마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마스터"는 한국 거주 10년 이하 결혼이민여성 또는 한국어 교육 3단계 수료 결혼이민여성(한국생활 초기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결혼이민여성)이 대상이다.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역량 강화, 취업 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여성 리더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했다.

교육은 총 10회기를 진행한다.

이론에서부터 다양한 디지털 메뉴(르뱅쿠키, 시나몬롤 빵, 모카 파운드케이크, 레몬 마들렌, 당근케이크, 티라미수, 컵케이크, 제누와즈 등)를 실습한다. 모든 실습이 끝난 후에는 시험을 치러 합격자에게 자격증 발급을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덕군가족센터 2층 조리실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2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신청은 영덕군가족센터 홈페이지(yd.familynet.or.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영덕군가족센터(☎054-730-7375)로 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24일 오전 신녕면(10:30), 오후 자양면(14:30)을 방문해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육군 50사단 혹한기 전술훈련

육군 50보병사단은 오는 29일부터 새달 2일까지 대구, 경북 일원에서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 및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배양,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단 관계자는 전술훈련 기간 중 실제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있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지원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요청에 따라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규모는 관내 10개교 33개 강좌, 33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채용 지원은 1월 22일(월) 재공고 마감후 25일 재선발 면접을 진행 예정이다.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채용 지원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현재 25개 강좌 44명의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선발인원은 22명이다. 도재훈 기자

# 김하수 청도군수, 공감 소통 대화로 군민 함께

##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2024년 읍·면정 보고회

청도군이 갑진년 새해부터 소통하는 군정에 걸음이 바빠졌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로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청도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새간 군민과 공감·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한 2024년도 읍·면정 보고회를 진행한다. 보고회는 22일 매전면을 시작으로, 23일 금천·운문면, 24일 청도·화양읍, 25일 풍각·각북면, 26일 각남·이서면 순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이번 보고회는 읍·면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공지사황을 김하수 군수와 읍·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민들이 그동안 군정에 궁금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알려주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하수 군수는 읍·면정 보고회에 직접 참여해 청도자연드림파크, 지역활력타운, 청도인터내셔널 유 빌리지 등 군의 주요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한다. 앞서 청도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농업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피력했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해 군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보고회가 끝난 뒤 읍·면별 경로당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 밖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학생,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인제육성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고향사랑기부금, 아동복지기금,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 4000여만 원을 기탁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일선의 현장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 지역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선 8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의 군정



슬로건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과 애로사항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히 처리해 군민과 소통하는 청도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 성주군 2024년 전국 태권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

### 태권도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성주군은 태권도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전국 태권도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별고을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전남, 강원, 충청, 부산, 경남 지역의 실업팀, 중고대학팀 그리고 베트남 국가대표팀까지 총 24개팀 370여명이 참가했다. 팀별로 최대 10일간을 성주군에 머물며, 평소 접하지 못한 여러 선수들과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선수분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성주군은 선수들의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훈련장 시설설치와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기간 체류하는 선수들과 임원, 가족들을 위해 숙소안내, 도시락, 생수, 간식 등을 지원하고 성주

군체육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을 대표해서 이병환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이 방문해 훈련장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국 태권도 미래 주역들의 성주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부상 없이 훈련을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이번 동계훈련이 여러분의 실력향상은 물론 성주군의 대표적인 볼거리,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 고령지역자활센터 "2024년 참여자 교육"

고령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9일 문화누리관 자활교육장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령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개인의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목표로 (성)범죄예방교육과 '자활근로 참여자 근무실태'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성)범죄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져 (성)범죄 예방의 계기가 됐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안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직무수행 개선을 하는 소중한 교육이었다. 고령지역자활센터는 "법정의무교육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4년에는 참여자와 센터가 새롭게 도약하는 자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영천시립박물관...유물 기증을 기다립니다

### 영천의 숨겨진 역사와 인물 시민과 함께 유물수집 본격화

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며 현재 유물 수집하고 있다. 영천시는 오랜 기간 공립박물관의 부재로 귀중한 유물들이 전국 곳곳으로 반출됐다. 지금이라도 흩어진 유물을 수집해 시민들에게 영

천의 뿌리 깊은 역사 문화를 들려주고자 매년 유물 수집과 유물 기증·기탁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물 수집을 위해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총 1442점의 유물을 확보했다. 현재 영천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영남지역 과거급제자 명단인 '교남과방록', 유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선생의 '포은집'과 '포은선생문집', 18세기 영천 대표 유학자 중 한 명인 매산 정중기 선생의 '매산문집',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큰 활

약을 펼친 호수 정세아 장군의 '호수실기', 영천지역에서 일어난 4차례의 의거 내용을 수록한 '영양사난창록', 각종 전통 민속품 관련 자료 등이다. 시는 영천시립박물관 착수를 앞두고 있는 올해에도 유물기증운동을 활발히 개최해 영천시민과 출향인, 타지인을 대상으로 유물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기증대상유물은 영천 지역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과 이 밖에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물품이나 자료 등이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발급 및 감사패 수여, 영천시립박물관 내 기증명패 게시, 박물관 행사 초청 등 기증자 예우와 특전이 주어진다. 최은하 기자

## 결혼 고령! 한 사람 고령!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
-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 [대면] 전국 농협은행
-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김천소년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상황 안정화를 위해서다.

23일 김천소년교도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헌혈 운동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남창식 김천소년교도소장은 "사랑 나눔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인 헌혈에 교도소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2024 구미향토생활관 '구미학숙' 입사생 모집

구미시는 2024년도 향토생활관(기숙사) '구미학숙'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청 자격은 구미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술업자)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학(전문대학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다. 선발 공고일(2024년 1월 19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장학재단 홈페이지(www.gumi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매일 농가주변 점검과 소독 실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당부

의성군이 선제 조치를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8일 안평면 삼촌리 일원에 야생멧돼지 양성 폐사체 2건이 발견되고, 17일 안평면 하령리 일원에 추가로 양성 폐사체 1건이 발견됐다.

이에 의성군은 양돈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10km 이내 양돈농가 3개소에 대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의성군 전체 양돈농가 주변에 기피제 700포를 긴급 살포했다.

또한 군은광역차단울타리'만큼은 꼭 사수한다는 각오로 울타리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드론을 활용해 울타리 주변 기피제 살포 및 경광등 100여 개를 설치해 야생멧돼지가 울타리를 넘어 남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멧돼지 서식밀도 감소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고 있으며 포획개체 전수에 대해 감염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열화상카메라와 드론 장비,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확산 차단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양돈농가는 매일 농



가 주변에 점검과 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실시

이자보전금 3%에서 4%로 확대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소상공인에게 3%의 이자를 지원하던 상주시는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자 보전율을 4%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100억 보증 규모 중 20억 원은 작년 도시과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 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 원이다.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지난 22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1588-7679)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백두대간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대상

김천시는 한반도의 생태 축인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소득 증가와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과 보호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과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 등이다.

민래기 산림복지과장은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 주체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2억4000만원 지원

참여할 상인조직 모집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구미시는 골목경제 기반 조성에 2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경영현대화 사업에 4000만원, 시설 현대화 사업 2억원 등 총 2억4000만 원을 상권 4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20일부터 29일까지다.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는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25개,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개별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고추비닐 지원사업 조기 공급 추진

고추 멀칭용 비닐 사업비 2억 지원

의성군은 고추 주산지로서 고추재배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고추의 다수확을 통한 소득 증대와 영세한 고추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추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원(보조금50%, 자부담50%)이다. 사업량 500ha로서 관내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멀칭용 비닐을 지원한다.

특히, 고추 집중 정식시기(4월 중-5월 초) 전 2월 중 대상자 확정 통보로 조기에 물품을 공급하여 영농기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련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 이상 재배농가이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천

창의성이 빛난 직원 추천을 찾습니다

우선 시는 지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내부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는다.

시민추천은 상주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에서 할 수 있으며 연중 누구나 적극행정 공무원 및 사리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의 단순 친절 행위 및 추상적인 성과·노력에 대한 추천은 할 수 없다.

추천자는 공적내용 검증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실무심사와 객관적 검증을 위한 1·2차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고, 3차심사에서 우수공무원 및 인센티브에 대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례조회 시 상장·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공무원들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상주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

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등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올해부터 팀원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팀 선발을 신설했다.



동기영에서 상주하다

상주의 그림같은 풍경이 당신에게 특별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상주 나락산





## 겨울여행

# 올진으로 떠나자

### 그곳에 가면 특별한게 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  
올진의 밤밤곡곡 밝히는 야간관광명소  
일출→일몰까지 죽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연호공원, 색다른 풍경 은어다리  
조명아래 펼쳐지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후포 등기산공원, 그리고 스카이워크  
그곳이 바로 푸른바다 철록의 숲 올진

푸른바다, 청록의 숲  
햇살 아래 만나는 올진 여행지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활기와 생생함이 넘치는 그 시간을 지나고, 해가 그 모습을 감추고 나면, 올진의 또 다른 매력이 빛을 발한다.  
때로는 고즈적하게, 때로는 화려하다.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올진군의 밤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죽변 ~**  
일출은 통해, 일몰은 서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겨울 죽변을 꼭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죽변에서는 바다 위로 뜨는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은 기본이요, 바다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과 함께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다.  
동해 일출이야야는 사람이 다아는 장관.  
죽변 바닷가 어디라도 일출을 감상 하기에는 손색이 없다.  
그렇게 일출을 즐기고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폭풍수

으로 세트장, 하트해변, 죽변항 수산물 시장 등등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훌쩍 오후 시간.  
해가 지려는 기운이 느껴지면 죽변 등대공원으로 향하면..  
등대공원 뒤쪽 바다를 지나 저 멀리 능선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과 조금씩 바다로 어둠이 내리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출과 일몰의 가장 베스트 샷을 볼 수 있는 건 1~2월 이즈음이다.  
죽변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밤의 추억은 이곳에서 ~ 올진**  
코끝을 찡하게 하는 겨울밤의 공기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올진 연호공원과 은어다리가 적격이다.  
도심 속에 위치한 연호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겨울밤 산책을 하기에도 딱! 좋은 코스이다.  
공원을 둘러 싸고 있는 산책로는 조명 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밤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거기에 월연정과 월연정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락교에 조명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인생샷 각이 나온다.  
연호공원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야경을 보여 준다면, 올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은어다리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색다른 밤의 풍경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은어다리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남대전에 자리한 보도교로 커다란 은어 두마리가 왕피천 하구를 건너 동해바다로 가는 형상으로 다리를 지키고 있다.  
경북의 야경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던 은어다리의

야경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다.  
민물과 바다의 만남,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은어,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밤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은어다리의 야경은 눈에 마음에 그리고 사진에 담기에 더할나위 없다.  
연호공원과 은어다리에서 특별한 밤의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제는 좀 더 신비로운 분위기의 야경을 만나보자!

**□신비의 세계속으로 ~ 후포**  
올진의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후포는 해마다 올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대개나 후포항구만 알고 있다면 어둠이 깊은 후포항을 꼭! 찾아가 보기를 추천한다.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매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무엇보다, 후포의 야경은 한마디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후포항을 내려다보는 등기산에는 세계의 유명 등대가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신석기 유적관 등이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밤, 칠흑같은 어둠속에 빛나는 등대들과 반짝이는 조명들이 등기산공원을 뽐신시킨다.  
낮의 등기산 공원은 뭔가 청순가련의 느낌이라면 어둠이 내리고 조명이 밝혀진 등기산은 성숙하고 노련함과 묻어나는 느낌이다.  
등기산 야경의 백미는 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는 등기산 스카이워크의 모습이다.  
환한 햇살 아래에서는 바다위를 걷는 짜릿함을 선물했던 스카이워크는 밤이 되면서 화려한 조명으로 자태를 뽐낸다.

야간에는 직접 스카이워크를 걸을 수는 없지만, 검은 바다위를 뻗어 나가는 형형색색의 조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스카이워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여행을 만날 수 있는 곳 올진 올진에서의 밤은 그 어떤 여행보다 아름답다.  
지금 떠나라!! 올진의 밤밤곡곡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올진관광 1천만 시대**  
올진군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위한, 명품관광 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곰솔숲을 보유한 지역 특색을 활용, 올진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한다.  
정주인구가 많은 주요 해안면 약 10ha의 면적에 곰솔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후포해수욕장과 후정해수욕장 2곳에 해안곰솔숲 조성을 완료했다.  
2024년 흥부해안숲 등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봉평리 해안숲 등 3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 올해 조성한다.  
앞으로 조성되는 곰솔벨트에는 해안면에 적합한 수종인 해송과 팽나무, 맥문동, 해국 등을 기존 경관에 조화롭게 심는다.  
기존 해송군락지도 정전 등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해안면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순병복 올진군수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사업은 조기에 완료, 올진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특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진관광 1,000만 시대 준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계적 오션리조트 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 연호공원